

《飲水行程曆》에서 언급된 중국 도서의 現傳本 고찰

- 木山 李基敬 藏書印本 《三魏集》를 중심으로 -

이 경 훈*

〈目次〉

- | | |
|-----------------------------|------------------------|
| I. 서론 | 2. 목산의 중국 도서에 관한
견해 |
| II. 《음빙행정력》의 중국 도서
관련 기록 | III. 목산 장서인본 《삼위집》 고찰 |
| 1. 목산의 중국 도서 수집 방식 | IV. 결론 |

I. 서론

조선시대에 중국 연경에 다녀온 사신들이 남긴 기행문인 연행록에는 당시 중국과 조선 간의 문화 교류와 관련한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 특히 연행 사신이 사행 여정 중에 보인 중국 도서에 대한 관심과 구입 노력에 관한 기록은 다수의 연행록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행록에 있는 수많은 중국 도서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연행 사신들이 중국의 문학·역사·예술 등이 조선에 수용되고 전파하는 과정에서 그 핵심을 담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연행에서 실제로 구매하거나 얻게 된 중국 도서가 현재 어떤 상태로 얼마나 존재하는 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옥영정(2015)¹⁾은 수많은 연행사가 중국 여행

* 전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BK21PLUS한중문화 화이부동(和而不同)연구 창의인재 양성사업단 기금교수, 중국아시아연구소 연구원.

1) 옥영정, <조선 使臣의 중국서적 수집활동과 그 현존자료에 대한 시론적 고찰>.

에서 보거나 구입해간 서적에 대한 현전 자료를 찾아내어 기존의 연행 연구를 출판문화사와 서적교류사로의 외연을 확장하고 현전하는 중국 도서가 희귀서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성을 지니는 자료로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본 연구는 18세기 중엽에 서장관 신분으로 연행을 다녀온 목산 이기경(木山 李基敬)²⁾의 연행록 《음빙행정력(飲氷行程曆)》에서 언급된 중국 도서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목산이 자신의 연행에서 수집하고자 했던 중국 도서는 무엇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어떤 중국 도서를 소장하였다가 후손이 소장하게 되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는 현전하는 자료의 실증적 고찰을 통해 현전하는 중국 도서의 가치를 재확인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행록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존하는 중국 도서의 역사적 가치를 증명하고 더불어 연행록에서 언급한 중국 도서의 현전본이 지니는 향후 연구 방향을 재탐색할 수 있게 하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II. 《음빙행정력》의 중국 도서 관련 기록

목산 이기경은 전주 출신으로 영조(英祖)대에 청요직(淸要職)을 두루 거쳤으며 도암 이재(陶菴 李穡)의 문인이었다. 경학(經學)과 예학(禮學) 및 이학(理學) 등에 두루 조예가 깊었으며 그 밖에 제자백가(諸子百家)와 도학(道學) 및 불학(佛學) 등에도 대단히 박학하였고 또한 시문(詩文)과 서예(書藝)에도 능하였다. 특히 그는 이학에 밝아서 「변한남당동이고중어(辨韓南塘同異考中語)」라는 논문을 통하여 당대의 학계에서 일대 논쟁점이었던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을 구명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호락(湖洛)논

《서지학연구》 제61집, 2015.

- 2) 이기경(李基敬, 1713~1787) 본관은 全義이며, 자는 伯心이고, 전주 오목대 아래에 산다하여 雅號를 木山이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후 ‘이기경’을 ‘목산’으로 통일하여 칭하고자 한다.

쟁에 사실상 매듭을 지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1739년(영조15)에 정시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1746년(영조22)에는 문과 중시에 급제하였으며, 사헌부 헌납(司憲府 獻納), 세자 시강원 보덕(世子 侍講院 輔德), 승지(承旨), 대사헌(大司諫),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 의주윤(義州尹),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 등을 역임하였고, 1755년에 서장관(書狀官)으로 중국에도 다녀왔다.³⁾

목산은 1755년 12월부터 1756년 1월 사이에 서장관 직을 수행하기 위해 연경에 머물면서 사행 여정 중에 접하게 된 중국 도서들에 관해 자세한 설명과 함께 견해를 자신의 여행록인 《음빙행정력》에 많은 분량으로 기록해 두었다. 목산이 여행을 갈 당시인 18세기 중엽은 이미 여행 사신의 개인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진 시대였다. 또한 이미 행해진 여행에서 수준 높은 여행록을 미리 참고함으로써 목산의 여행록은 비교적 충만한 내용과 주제를 담고 있었다.⁴⁾ 경학·예학·이학 등에 조예가 깊었던 목산은 여행 사행 기간 동안 각종 경로를 통해 이러한 학술과 관련된 중국 도서를 접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 또한 어렵게 수집된 중국 도서 관련 자료와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견지하며 여행록에 빠짐없이 기록하고자 했다.

그럼 먼저 목산이 중국 도서를 구득하는 방법에 대해 기록한 자료를 《음빙행정력》에서 분류해 낸 뒤, 기타 사행의 도서 수집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목산의 중국 도서 수집 방식

목산이 여행 사행 중에 중국 도서를 접하게 되는 경로와 방식을 기록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3) 이기경의 《木山藁》 영인본과 전주시·전주역사박물관의 《전주학연구》 제6집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4) 이경훈, 〈《음빙행정력》 소고〉, 《중국학논총》 제56집, 2017, 203~205쪽.

• 1755년 12월 24일(번역본 114쪽)⁵⁾

책자와 서화를 가지고 와서 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답지하였으나, 대부분 값을 지나치게 높이 불러 다만 《溫公全集》과 《列國志》 두 질을 사고 수십 자루의 부채를 값으로 주었다. 일찍이 삼연 선생의 ‘豐潤書肆’라는 시를 보았는데, “중원에는 이미 독서하는 사람이 없어져, 모든 책을 조선 사람들이 열람한다네.”하였다. 이제 물어보니, 특별히 서점이라는 것은 없고 매년 사신들이 올 때마다 책 파는 사람들이 몰려오니, 삼연선생의 말은 아마도 이것을 말한 것 같았다. 풍운과 玉田 사이에는 명문가 후예로서 이제 평민이 된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⁶⁾

• 1756년 1월 3일(번역본 155쪽)

신미, 북경에 머물렀다. 이날 다시 삼소음을 복용하니 감기가 제법 나아졌다. 서점에서 도서목록을 구하였는데, 서반을 시켜서 빌려보았다.⁷⁾

• 1756년 1월 17일(번역본 181쪽)

근년에 사행을 보낼 때 영조 임금께서 문집을 구입해 오라는 하교가 있어서 처음에 문집 초고 몇 편을 구해서 왔으나, 심하게 오류가 많았다. 그 후에 또 그의 시집을 구해 왔으나, 흠어져 떨어진 잔쟁이들이었고 모두 완전한 전질이 아니었다. 이번 사행에서 역관들을 시켜 비밀히 탐문하게 하였는데, 강남 사람으로서 벼슬아치 집에 36권의 전질이 있었다. 그 집 하인에게 높은 값으로 뇌물을 주어서 유혹한 결과 거의 반출해 올 뻔 하였으나, 그가 먼저 승낙하였다가 후에 뉘우쳐 버렸으니, 매우 한탄스러웠다.⁸⁾

- 5) 본 논문에서 •로 표시된 한글 인용문은 이영춘 외 6명, 《1756년의 북경이야기-이기경의 《음빙행정력》역주》를 인용했으며, •로 표시된 한자 원문은 “이기경, 《木山藁》 영인본을 인용했다. 번역본의 쪽수는 기입하고 원문의 쪽수는 생략하였다. 색인은 일기의 연도와 일자로 식별한다. 이후 번역문과 원문의 서지정보는 생략하기로 한다.
- 6) 持冊子書畫, 請買者, 簇至而率皆索價太高, 只買溫公全集列國志兩冊, 而換以數十扇. 云曾見淵翁詠豐潤書肆, 云中原已絕讀書, 種摠爲朝鮮人檢閱. 今問之別無書肆, 而每年使行時, 賣書者不絕. 淵翁之言, 必以此也. 豐潤玉田之間, 槩多故家爲民者云.
- 7) 初三日, 辛未, 晴留北京., 是日再服蓼蘇飲, 感氣頗鮮, 求書目於冊肆從胥班.
- 8) 向年使行時, 自 上有購來之教. 初得文稿若干篇, 以來而甚寂寥. 其後又得來詩集, 而散落之餘, 皆非全本. 今行使象舌密探則江南人仕官家有三十六本全帙, 餌

• 1756년 1월 17일(번역본 192쪽)

처음 내가 길을 나설 때 송나라 명나라의 유민의 사적을 찾아오려고 했으나 끝내 얻지 못하였더니, 남경의 하급관리가 소장한 서목 중에 《三魏全書》가 있었으니, 바로 명나라 말기 강서인 徵士 魏兆鳳과 그의 아들 祥·禧·禮가 동지들과 조카 敬士·昭士 등과 더불어 易堂에서 은거하며 강의하고 저술하였으니 이를 ‘《三魏全書》’라고 하였다. 책 속에는 유민들의 일을 기록하되 말이 비감하고 강개하니, 깃털 하나로 족히 온전한 봉황의 문체를 볼 수 있었다. 북경의 서점에는 구할 수 없어 강서 출신 서반에게 비밀히 겨우 한쪽을 구입하였으니 모두 28본이었다. 아, 위씨는 그 또한 만촌의 유파였던가 보다.9)

• 1756년 1월 18일(번역본 195~196쪽)

근일 이래로 장사치들이 각양의 물건을 다투어 가지고 와서 玉河館에서 파니, 역관 중에 이익만 탐하는 자들이 날마다 분주하다고 했다. 이에 예부에서 옥하관 문에 방을 붙여 고시했다. 그 방은 아래와 같다. “비추어 보건대 조선국 사신이 歲貢을 와서 바치니, 貢役들이 연경에 와서 옥하관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들이 사용하는 일체의 옷과 음식과 그릇 등은 죄다 너희 도매 소매업을 하는 자들로 하여금 옥하관에 들어가 팔게 하되, 다만 역사서와 지도, 그리고 알록달록하게 꽃을 수놓은 西番의 비단과 大馬, 일체의 병기, 염초, 무소뿔, 담비가죽, 수달, 사리손, 강피 등의 가죽과 함께 옥하관에서 팔지 못하게 하였거늘, 무지한 무리들이 법을 무시하고 교역할까 걱정하여 이같이 유시하니, 각 도매 소매업자는 알아서 할지어다. 이후로 마땅히 禁畵를 좇아 각별히 엄한 규정을 지켜, 교역하는 배와 비단 등을 모름지기 기한을 정하여 기한이 되면 거래하도록 하여, 외국인들로 하여금

以重價於其家丁，幾乎得出，而先諾後悔，甚可歎也。

- 9) 始吾臨行0000000要覓宋明遺民事蹟，以來而終不得。南京胥班所莊書目中，有《三魏全書》乃是明末江西人魏徵士兆鳳，其子祥·禧·禮與同志之士，及其子姪敬士昭士輩隱居講學於易堂有所著述，謂之《三魏全書》。《三魏全書》中有記遺民事語多悲切慷慨，一羽足見全鳳文章。北京冊肆中無所有，密購於江西胥班，厘得一帙合二十八本。噫！魏氏其亦晚村之流歟。(원문에서 ‘0000000’ 부분은 먹물로 지워져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진행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이름이 지워진 것이게 아닐까 한다. 예를 들면, 000與000와 같이 기록하였다가 삭제한 것으로 필자는 추론하고 있다.)

수요의 시기를 늦추지 않도록 하라. 만약 법을 무시하는 부랑배들이 고의로 시일을 끌고 기만하거나 사사로이 교역하는 자는 모두 색출하고 혹 고발이 들어오면 본부에서 반드시 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결단코 관용을 베풀지 아니할 것이니, 두려워하고 삼갈지어다.” 예부에서 이처럼 분부하고 역관 4인을 衙門에서 함께 모이게 하여 기찰을 관장하게 했다. 그러므로 서반들이 역사책을 팔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은밀히 잠입하니 남이 알까 두려워했다. 이른바 이문은 提督 1인과 大使 1인, 大通官, 次通官의 부류였다. 매 사행시에 예부에서 서반 6인을 정하여 보내니, **무릇 서책과 佩香, 筆墨 등은 서반이 아니면 팔 수가 없었다.** 대개 북경에는 글자를 아는 자가 적었으므로 서반은 모두 남방에서 왔으며, 객지에서 살아가는 형편이 지극히 고달프다고 한다.¹⁰⁾

상기의 내용을 통해 목산이 중국에서 중국 도서를 접하는 경로와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 서적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만나거나 (12월 24일), 둘째, 서점의 도서목록을 구하여 그 중 관심 있는 도서는 서반을 시켜서 빌려보거나(1월 3일), 셋째, 역관들을 시켜 탐문하게 하여 수집하거나, 넷째, 개인 소장 서목을 구해 보거나(1월17일), 다섯째, 서반을 통해서 구입하였다.(1월17일, 1월18일) 이러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접하게 되는 도서를 실제로 구매할 수도 있고, 다만 빌려 열람만 하기도 했으며, 서목을 통해 책의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10) 自近日以來，商人賈子爭特各樣貨物來，賣於館中，象舌射利之輩，遂日奔走。云禮部揭告示于館門，其榜云，照得朝鮮國差來進年貢，員役來京在館居住，所有一切衣食器皿等項，悉令爾行家舖戶賣買人等，入館貨賣。惟史書·輿圖·黑黃紫皂大花番蓮緞疋，以及大馬·一應兵器·焰硝·牛角·貂皮·水獺·狹狽孫·江獺等，皮不許入館售賣。惟恐無知之徒，罔知法紀違禁交易，爲此示諭，各行家舖戶人等，知悉嗣後，務宜凜遵禁令，恪守嚴規，其交易布絹等項，務須立限至期交，還毋使外國人員等候，需時尙有玩法棍徒，故意拖延欺詐，及私相交易者，一經察出，或被首告本部定行，按律究治斷不姑寬，凜之慎之。云禮部以此，知委會同四譯館，衙門以掌譏察，故胥班輩求賣史冊時，必密地潛入，或恐人知。所謂衙門，提督一人，大使一人，及大通官次通官之類也。每使行時，禮部定送胥班六人，凡係書冊·佩香·筆墨，卽非胥班毋得售。蓋北京鮮識字者，故胥班皆從南方來，旅托生理，極其蕭然云。

목산의 중국 도서 수집 방식은 이전 사행에서 행해졌던 방식과 많은 차이는 없으나 1월 18일자 기록은 상고할 만하다. 우선 신익철(2009)¹¹⁾의 선행 연구를 보면 북경에 도착한 연행사가 공식적으로 중국 서적을 매입하는 경로는 대부분 서반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서반이 서책의 매매를 전담하게 된 연유를 청조의 공식적인 기록에서는 찾지 못하여 조선의 연행 기록을 종합해서 추론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이의현(李宜顯)은 ‘서반이 남방출신으로 서책이 대부분 남방에서 출간되어 북경에 이르기엔 이들이 서책의 매입을 증개한다’고 하였으며, 홍대용(洪大容)은 ‘지방의 성으로부터 뽑혀 온 서반의 낮은 봉급을 보전해주기 위해 직무 수행과 관련한 일종의 경제적 특혜를 준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기지(李器之)는 ‘서책의 매매를 서반들이 관례에 따라 이익을 취했다’고 했다.

본고는 상기의 내용에 목산이 말한 ‘북경에는 글자를 아는 자가 적었으므로 서반은 모두 남방에서 왔으며 객지에서 살아가는 형편이 지극히 고달프다’는 기록을 보강하여 서책 매매를 서반이 담당하게 된 과정을 보강 추론해 보았다. 즉, 예부 소속으로서 외국 사신의 접대 및 통역을 담당하는 서반은 외국사신 접대 관련 업무의 기찰 관장을 위해 외국사신이 머무는 관서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러다 외국사신 특히 조선 사신들은 중국 도서 구매율이 높아 중국 도서를 매매함에 있어 이윤이 생기자 역관 중에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늘어났다. 특히 글자 즉 한자(漢字)를 잘 아는 남방(강남)출신의 서반이 출신지역에서 출간되는 도서의 파악이 훨씬 유리하게 되자 기찰을 관장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역이용하여 일반도서는 물론 매매 금지령을 내린 중국 역사서도 남몰래 불법을 행하여 이윤을 취하게 된 것이다. 특히 서반의 이윤 창출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은 조선의 사신들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관례가 되어 조선 사신들은 서책 매매와 관련하여서는 우선적으로 서반을 찾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북경에는 글자를 아는 자가 적어서 서반은 모두 남방으로부터 오게 되었을까?

11) 신익철, <연행록을 통해본 18세기 전반 한중 서적교류의 양상>, 《태동고전연구》 제25집, 2009, 233~236쪽.

이것 역시 목산의 연행 기록¹²⁾을 통해 추론해 보는데, 강희제 때는 군정을 만주족에게 위임하였고, 민정은 한족에게 위임하였으나, 건륭제 때는 만주족이 민정까지 아울러 점령하여 한족은 자리나 채우고 있을 뿐이고,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으면 곧장 처벌하여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심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건륭제의 성격이 의심이 많아 한족을 관료에 위촉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위직 관료를 맡을 수 없는 한족은 당연히 서반 같은 한직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고, 한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족으로서 유리한 도서 매매를 비공식적으로라도 담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어렵게 접촉하게 된 중국 도서에 관해 목산은 어떤 견해와 태도를 보였을까 살펴보자.

- 12) 1755년 12월 25일(번역본 116쪽): 대개 듣자하니 강희제때의 관제에 군무의 직책은 청나라 사람들에게 주고, 민정관은 한족에게 임명하였으나, 이후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概聞, 康熙, 官制軍務之職屬清人, 民官皆差漢人, 而後來却不盡然云。

1756년 2월 3일(206~207쪽): 황제가 정령을 시행하는 큰 원칙은 숨은 간당을 적발하는 것을 현명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혹하고 세세함을 면치 못하였다. 크고 작은 사무를 여러 관리들에게 위임하지 않고 반드시 친히 결정하였고, 성격에 또 의심이 많아 매번 한족 관료들은 풍조가 나쁘다고 여기면서 현저히 싫어하는 뜻이 있었다. 하교하는 문서에는 반드시 “짐은 천하의 공통된 임금으로 만주과 한족을 똑같이 본다.”고 하였지만, 근래의 관직 분장을 보면 모두 한족에게 위촉하지 않았다. 강희제때는 군정을 만주족에게 위임하였고, 민정은 한족에게 위임하였으나, 지금은 만주족이 민정까지 아울러 점령하여 한족은 자리나 채우고 있을 뿐이고,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으면 곧장 처벌하여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심이 순종하지 않았다.

云皇帝政令大體, 以發摘奸伏爲明, 故未免苛細。大小事務不委群下, 必親裁決, 性又猜疑, 每謂漢人有習氣顯有厭薄之意, 而其出於辭令者, 則必曰, “朕爲天下共主一視滿漢。”云。近要職掌皆不屬漢人。康熙時。兵務委滿洲, 民官任漢人。今則滿洲并占, 民官漢人備位而已。少有過失輒施譴罰, 不少假借。以此人心不服從。

2. 목산의 중국 도서에 관한 견해

현존하는 목산 장서인본 중국 도서를 고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목산의 견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즐고(2019)에서 연구된 목산이 가진 중국 도서에 관한 견해를 간단하게 인용하여 목산이 중국 도서를 소장하게 된 사상적 근거를 찾고자 한다. 본고에서 말하는 중국 도서에 관한 긍정과 부정적 견해의 가치 판단은 모두 목산의 견해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먼저, 목산이 《음빙행정력》에서 언급한 도서류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린 중국 도서들을 정리하면¹³⁾, 《사서강의(四書講義)》, 《삼위집(三魏全書)》, 《경제문형(經濟文衡)》, 《문헌통고(文獻通考)》, 《삼재도회(三才圖會)》 등이 있다. 또한 직접적인 소개를 거치지 않았으나 전목재(錢牧齋)의 《유학집(儒學集)》도 여유량(呂留良)의 자(字)를 설명하면서 언급되었다. 이외에도 값을 비싸게 불러서 도서를 구매하지 못했던 상황에서도 수십 자루의 부채를 값으로 치르고 직접 《온공전집(溫公全集)》과 《열국지(列國志)》를 구매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목산이 여행에서 가장 관심을 둔 중국 도서는 여유량의 문집이었다. 그리고 《여만촌문집》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여유량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대의각미록》을 구하여 본 뒤 자신의 여행록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여유량 관련 내용을 초록(抄錄)해 두었다.¹⁴⁾

목산이 여유량의 문집 수집에 힘을 쓴 가장 큰 이유는 영조의 하교(下敎)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목산의 여행록만을 통해 보더라도 영조는 목산 이전의 사행에서부터 여유량의 문집을 구해오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목산이 보여준 중국 도서 수집에 관한 노력은 지극히 개

13) 이경훈, 〈《飲水行程曆》에서 언급된 중국 도서 고찰-木山 李基敬의 견해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제81집, 2019.

14) 이경훈, 〈呂留良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시선 一面考〉, 《간지인문학》, 제27집, 2020.

인적인 관심 사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동시에, 목산이 소속된 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영조의 하교는 영조를 비롯한 집권세력이 견지한 승명반청(崇明反淸) 의식의 발로에서 나온 결과이며, 영조 자체도 소중화주의의 문화중심적 화이관을 품은 대표적 인물의 한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유량의 문집에 대한 수집 노력의 기록은 영조를 비롯한 조선의 대표적 담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목산은 개인적인 연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살펴보자.

먼저 목산은 풍운현(豐潤縣)에서 값을 비싸게 불러서 도서를 구매하지 못했던 상황에서도 결국은 수십 자루의 부채를 값으로 치르고 《운공전집(溫公全集)》과 《열국지(列國志)》를 구매하였다고 기록했다. 목산은 이 두 도서에 관해서 직접적인 견해를 드러낸 문장도 없고 도서의 내용을 소개한 기록도 없었다. 다만 구매를 성사시켰다는 사실을 통해 목산은 《운공전집》과 《열국지》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목산이 높은 값을 주고 구매를 하도록 한 긍정적 견해의 실체는 무엇이였을까? 필자는 목산의 《열국지》 구매 사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열국지》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던 중, 정우봉(2014)의 연구에서 강세황이 《열국지》를 평가한 문장¹⁵⁾을 보았을 때 목산의 《삼재도회》에 관한 기록과 매우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강세황이 《열국지》의 내용은 속되어 볼 것이 없지만 옛것을 상고해 그랬으므로 볼 만하다며 삽화만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처럼, 목산도 “《삼재도회》가 진실로 한만한 책이나, 이 책이 있는 것에 힘입어서 중화의 의례제도의 만분의 일이라도 상고할 수 있으니, 어찌 다행스럽지 않겠는가!”¹⁶⁾라고 평가하였는데, 이러

15) 정우봉, 〈조선 후기 지식인의 陳繼儒 수용과 그 의미〉, 《韓國漢文學研究》, 제57집, 2014, 257쪽. 재인용: 姜世晃, 《豹菴遺稿》 권5(장서각 소장본), 「題列國志」 “列國志, 陋俚無足觀. 獨其圖像一卷, 車服器用制度, 考古而爲之, 頗可觀. 中原人不可及如此.”(번역문: 열국지는 속되어서 볼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삽화 한 권만은 수레, 복식, 기구의 제도를 옛것을 상고해 그랬으므로 자못 볼 만하다. 중국 사람을 따를 수 없는 것이 이와 같다.)

한 삼재도회의 평가가 《열국지》에 대한 평가를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당시에 구매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열국지》와 《온공전집》은 현재까지는 목산가 소장본에서 찾아볼 수 없어 매우 아쉬웠다.

그리고 상기 인용문 1월 17일자 일기¹⁷⁾를 보면, 《삼위전서》가 명나라 말기 강서인(江西人) 위씨(魏氏) 집안의 부자(父子)들과 친지들이 역당(易堂)에서 은거하며 강의하고 저술한 내용임을 목산이 직접 확인하고는 《삼위전서》의 문장에 대해서 “一羽足見全鳳文章(깃털 하나로 족히 온전한 봉황의 문체를 볼 수 있었다)”이라는 극찬을 쏟아 부었으며, 위씨일가를 만촌의 유파로까지 여기고자 했던 개인적 추론을 덧붙여 기록하였다. 또한 목산이 《삼위전서》에 감격하는 이유는 《삼위전서》가 바로 목산이 당초 사행 전에 맘먹었던 송나라와 명나라 유민의 사적을 구하고자 노력한 끝에 찾아낸 도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열망하던 바를 이루었으니 그 감격을 어찌 글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

이어서, 목산이 《음빙행정력》에서 언급한 도서류에서 부정적 평가를

16) 1756년 1월 26일(번역본 201쪽): 《삼재도회》가 진실로 한만한 책이나, 역대 君臣圖像이 비록 칠훈(보통의 초상화)과는 모양이 다르지만 역시 비슷하게 상상하기에 충분하다. 또 초목과 조수의 형상에 박식하였다. 이것뿐만 아니라 백년 동안 오랑캐의 털가죽을 입어서 문물이 씻은 듯 없어졌고 중국 관리의 위의를 다시 볼 수가 없는데, 이 책이 있는 것에 힘입어서 중화의 의례제도의 만분의 일이라도 상고 할 수 있으니, 어찌 다행스럽지 않겠는가! 그 중에 부인이 착용하는 봉관과 가계의 등숙은 지금 살펴보고 시행할 수 있다. 아! 동방의 예의가 중화에 못하지 않은데 오직 부인의 髷子만이 오랑캐의 습속을 면하지 못하였다. 예를 좋아하는 집안에서는 혹 중화의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나라 전체에 두루 행하지 않으니 매우 한탄스럽다. 역관 최시운에게 부탁하여서 봉관, 가계 견본을 찾아오게 해서 그것을 보니 책자에 그런 바와 흡사하므로 마침내 모두 사서 가져왔다.

《三才圖會》固是閑漫之書，而歷代君臣圖像，雖異七分之兒，亦足以想像彷彿。又多識於草木鳥獸之形，不特此也。百年僮裘文物蕩然漢官威儀不可復見，而頗有此書得考。皇朝儀制之萬一庸非幸歟。其中婦人所着鳳冠假髻之屬，今可按而行之。噫！東方儀文中中華，而獨婦人髷子未免夷俗。好禮之家成有用夏者，而不能通行於一國，殊可歎也。屬譯官崔始運覓鳳冠假髻樣子，而觀之與册子所圖恰似。故遂并市來。

17) 각주9 참조.

내린 도서들을 정리하면 이지(李贄)의 《이탁오유사(李卓吾遺史)》, 이불(李紱)의 《주자만년전론(朱子晚年全論)》, 모기령(毛奇玲)의 《모서하집(毛西河集)》 등이 있다. 목산은 자신의 연행록에 부정적 견해를 지닌 중국 도서에 대해서도 꽤나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왜 자신이 부정적 견해를 지니게 되었는지 상세히 기록하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목산은 부정적 견해를 지닌 중국 도서에 대해서는 대여하여 자신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기만 했을 뿐, 구매를 했다거나 구매를 시도한 기록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목산가 소장본 도서에서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도서는 산질본으로도 소장되어 있지 않았음을 소장본의 일차적 정리 중에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목산의 연행 기록을 통해 중국도서에 대한 견해를 정리해보면 목산의 중국 도서를 평가하는 가장 큰 기준은 주자를 핵심으로 하는 정통 성리학과 유교적 의리 명분의 여부에 달려있었다. 목산에게 있어서는 《이탁오유사》, 《주자만년전론》, 《모서하문집》 등 육왕학적 색채가 농후하고 반주자학적 사상의 도서들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치부하였다. 또한 지리적으로 중화를 구분하는 중화사상이 아니라, 문화의 존재 여부를 통해 중화와 이적을 나누는 중화사상을 견지하며 조선이 중화임을 신봉하는 소중화사상을 유지하기 위해 대명의리의 준수여부를 따지고, 자신이 추구하던 조선의 주자학적 성리학에 위배되지 않아야 했다. 조선의 성리학은 정주리학에 관해 부정적이거나 공격적이어서는 안 되었다. 게다가 저자의 사상과 행적도 復明의 기치를 든 大明의 후예답게 저항하였는지 따져 묻는 방식으로 중국 도서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견해를 피력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목산과 같은 연행 사신이 사행 중에 접한 중국 도서에 관한 견해 기록을 분석해 봄으로써 조선 중기 집권세력의 대청인식의 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집권세력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목산의 대청인식이 개별 연행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결국 목산 개인의 견해에 따라 중국도서의 구매여부가 결정된 것처럼 보

이지만 결과적으로 목산의 견해는 개인의 견해로 끝나지 않고 그 당시 조선의 중국 도서를 수용하는 견해를 보여주는 실질적 사례가 되는 것이다.

Ⅲ. 목산 장서인본 《삼위집》 고찰

조선의 연행사신들은 조선의 문학·역사·예술 등의 모든 방면에서 언제나 변화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변화를 이끈 결정적 역할을 한 매개체는 사행을 통해 수집해 온 당시의 중국 도서였다. 현재 한국에 남아 있는 수많은 중국 고서중에는 연행사신에 의해서 구입되고 수집된 것이 상당 부분 남아 있다. 하지만 연행에 관련된 연구에서 실물로 남은 서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찰하며 실물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가 드물다는 학계의 의론을 접하고, 본문은 이에 관한 연구를 시도해 보고자 했다.

그리하여 목산의 《음빙행정력》에서 언급된 중국 도서 기록을 토대로 현전하는 중국 도서가 실재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삼위집》·《삼재도회》·《목재유학집》 등의 중국 도서가 현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¹⁸⁾ 이처럼 연행 기록을 토대로 하여 현전하는 중국 도서를 고찰하는 방법은 중국 도서의 유입시기와 수집방식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현전하는 중국 도서의 고문서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 현재까지 목산가 소장본 고서에 관한 종합적인 도서목록이 완성되지 못하였는데, 대략적으로 중국본 도서를 추려보면 《삼위집》 이외에도 《삼재도회》·《목재유학집(牧齋有學集)》·《목재초학집(牧齋初學集)》·《패문운부(珮文韻府)》·《해편심경(海篇心鏡)》의 여러 중국 도서가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래 본 연구에서 《삼재도회》·《삼위집》·《목재유학집(牧齋有學集)》 총3종의 도서를 우선 선별하여 고찰을 진행하였으며, 선별의 기준은 목산의 연행록에 언급된 기록을 근거로 하여 구매시기의 사료적 자료와 입수사실을 증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지면상의 제한으로 본고에서는 《삼위집》 고찰 부분만 발표하고자 한다. 《삼위집》 이외의 이기경 장서인본 현전본 중국 도서에 관해서는 향후 추가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며, 본문에서 살펴 본 현전본 《삼위집》의 실물 조사 또한 종료된 것이 아니며 향후에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 본 논문에서는 현전본의 수량이 가장 많고 현전 상태가 가장 완전한 《삼위집》을 우선으로 하여 고찰을 진행하였다.

목산이 《삼위집》¹⁹⁾을 소장하였던 것은 상기 문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목산의 가치관에 정확히 들어맞는 책이었기 때문이다. 《삼위집》은 명나라 말기 강서인 위씨(魏氏) 집안의 부자들과 친지들이 역당(易堂)에서 은거하며 강의하고 저술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도서이다. 위씨 삼형제인 위제서(魏際瑞)·위희(魏嬉)·위례(魏禮)를 비롯하여 왕사망(彭士望)·임시익(林時益)·이등교(李騰蛟)·구유병(邱維屏)·팽임(彭任)·증찬(曾燦) 아홉 유민은, 명이 망하자 청에 출사하지 않고 취미봉(翠微峰)에 은거하며 《주역(周易)》을 강론하며 지냈다하여 역당구자(易堂九子)라 일컬어졌다. 따라서 《삼위집》에는 명나라에 대한 절의를 지킨 명말 유민들의 삶에 대한 기록이 많이 수록되어 있었다.

목산은 자신의 사행에서 송나라와 명나라 유민의 사적을 찾는 것으로 사행의 개인적인 목적을 삼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틈나는 데로 북경에 머무는 동안 송나라와 명나라와 연관되는 것들을 구하고자 하였다고 기록²⁰⁾해 놓고 있다. 목산에게 있어서 송나라와 명나라만이 중화를 의미하고 있었으며, 주자학적 근원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송나라와 명나라의 사적을 하나라도 더 손에 넣기를 원했던 것 같다. 목산은 《삼위집》을 연행 사행에서 구서목록 1위였던 여유량 문집을 대신할 만큼 가치 있는 자료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목산 장서인본 《삼위집》은 비교적 완전하고 양호한 상태로 소장되어 있다. 따라서 목산 장서인본 《삼위집》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다양한 각도로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19) 《음빙행정력》의 1월 17일자 원문에는 《三魏全書》라고 기록되어 있고, 현전본 표지에는 《三魏集》으로 표제되어 있다. 도서 내부의 내제에는 《영도삼위전집》 《위백자문집》 《위숙자일록》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호칭의 통일성을 위해 목산 장서인 현전본상에 표기된 《삼위집》으로 통일하며, 중국 논문 인용부분에서는 《三魏全集》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20) 각주 9 참조.

지면의 제한을 고려하여 목산 장서인본 《삼위집》의 판본 연원에 대해 1차적 분석을 먼저 진행하고자 한다.

본문 각주 8번의 내용을 보면 《삼위집》을 구입한 경로와 구입결과에 대해 “북경의 서점에서는 구할 수 없어 강서 출신 서반에게 비밀히 겨우 한쪽을 구입하였으니 모두 28본이었다. (北京册肆中無所有, 密購於江西胥班, 厘得一帙合二十八本.)”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목산 장서인이 날인된 중국본 《삼위집》은 총4질 47책이 있다. 그렇다면 목산이 기록한 “一帙合二十八本”과 현전본 삼재도회의 ‘4질 47책’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한국에서는 《삼위집》 판본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기에²¹⁾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연구된 《삼위전집》의 판본 연원 관련 선행연구를 주로 참조하였다.

먼저, 劉勁峰의 〈寧都發現《寧都三魏全集》易堂刻版²²⁾〉에 따르면, 《영도삼위전집》 易堂初版은 강희 3년 즉 1664년에 판각되기 시작하여 강희

21) 박세욱(2007) 〈객가문인과의 첫 만남-양과 정태화와 위제서〉, 김대중(2013)의 〈魏禧와 조선후기 한문학-서유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안대회·김종민 외(2014) 다수가 번역하여 정리한 〈위숙자의 《일론논문》 역주〉 연구가 대표적인 三魏 관련 논문으로 확인되었다.

22) 劉勁峰, 〈寧都發現《寧都三魏全集》易堂刻版〉, 中國 江西歷史文物, 1980, 3期. 54쪽: 《寧都三魏全集》易堂初版, 始刻于康熙三年, 即1664年, 至康熙18年, 即1679年之前, 該集便梨然梓成, 但這時的《三魏集》僅收了《伯子文集》十卷, 《叔子文集》二十二卷, 叔子《日錄》三卷, 叔子《詩集》八卷, 《季子詩文集》十六卷, 而且在刊刻過程中, 因其著作甚多, 又“貧无工貨”, 所以不能一次刻成, 其客游諸作, “皆由主人代為流布”, 往往“朝脫于手, 暮登于木, 或先削板, 以待草成后, 有改定, 輒就地剗削。”初版完成之后, 《三魏集》依然隨時續刻, 并補進了《梓寶文稿》六卷, 《耕龐文稿》八卷, 《為谷文稿》十卷(時稱“小三魏”), 總數達到八十三卷, 五十冊. 乾隆五十二年因“三魏”作况, 中流露出的民族意識和進步思想, 該集被列為禁書, 焚, 毀以盡. 道光初, 今印板主人, 楊依天隊社員謝善元的太公謝榮春在安平(今河北省安平县)任官職期間, 意外地發現了一部經乾隆浩劫之后幸存下來的《三魏集》(易堂原板), 便如獲至寶地帶回家中, 交由其子謝廷緩于道光二十五年照原板重刊. 据说經過了四、五年的工夫, 刻板才完工. 自此, 《寧都三魏全集》得以重新流布海內.

18년에 이르러 완성되었으며, 이 시기의 《삼위집》은 단지 《위백자집》 10권, 《위숙자집》 22권, 《숙자일록》 3권, 《숙자시집》 8권, 《계자시문집》 16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시기 문집의 제작은 저작의 분량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문집을 제작할 만한 경제력이 없어서 한 번에 판각을 완성할 수 없었다. 초판을 완성한 후에 뒤이어 《재보문고(梓室文稿)》²³⁾ 6권, 《경무문고(耕廡文稿)》 8권, 《위곡문고(爲谷文稿)》 10권이 보충 판각되어(이를 ‘小三魏’라 칭함), 총 83권 50책에 달하게 되었다. 삼위의 작품은 민족의식과 진보적인 사상이 농후하여 이때 제작된 문집은 금서로 정해지고 모두 불태워져 없애졌다. 도광초(道光初)에 양의천대사원(楊依天隊社員) 사선원(謝善元)의 태공(太公, 祖父)인 사영춘(謝榮春)이 안평(安平, 지금의 河北省 安平縣)에서 관직을 맡았던 기간에, 건륭(乾隆)기간 문자옥(文字獄)에서 살아남은 《삼위집》(역당원판易堂原版)을 뜻밖에 발견하여 그의 아들 사정완(謝廷緩)이 道光 25년에 원판대로 다시 제작하였다. 이때부터 《영도삼위전집》은 새롭게 다시 중국에 유포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호성화(胡成華)의 《寧都“小三魏”的文集整理及其年譜彙編》²⁴⁾

- 23) 劉勳峰의 논문에서 《梓室文稿》를 《梓室文稿》라고 誤記하였으나 인용문인 관계로 《梓室文稿》라고 인용했다. 그러나 목산 장서인본의 書題 쪽을 근거로 하면 《梓室文稿》라고 수정해야 한다. 본 논문 20쪽 사진 중 맨 위쪽 가장 오른쪽 사진을 참조하고, 본문에서는 《재실문고(梓室文稿)》라고 칭한다.
- 24) 胡成華, 《寧都“小三魏”的文集整理及其年譜彙編》, 中國 江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4~5쪽: 《寧都三魏全集》先后至少刊行过三次康熙年间初刻, 称“易堂藏板”(下简称为“康熙本”), 后因遭清廷禁毁, 传本甚少. 道光二十五年(1845年)珍溪级园书塾重刻, 称“易堂原版”(下简称为“道光本”), 其版式、字体等与康熙本非常相似. 还有一次是光绪年间刻, 称“文奎堂藏板”(下简称为“文奎堂本”), 该版本从刻工以及纸张上来说都显得较为粗糙, 刻板比康熙本要小, 讹误较多. 268쪽: 《寧都三魏全集》始刻于康熙三年, 此后多次翻刻, 因此有多种版本存世. 笔者所见有康熙版、道光版和文奎堂版三个版本. 康熙版共三十六册, 纸张优良, 刻工亦精, 字体工整优美, 堪称善本. 书内有“易堂藏板”字样, 并钤有“委江陆润之鉴藏印”“听松”等印. 道光版为珍溪级园书塾重刻本, 书内有“易堂原版”字样, 有五种装帧. 该版本共五十册, 第一至六册为《魏伯子集》十卷, 第七册为《魏兴士集》六卷, 第八至册一册为《魏叔子集》, 包括《魏叔子文集》二十二卷第八至二十七册、《魏叔子诗集》八卷第二十八、二十九册、《魏叔子目录》

에 따르면, 연구를 위해 참고한 《영도삼위전집》의 판본은 모두 세 가지로 “강희판(康熙版), 도광판(道光版), 문규당판(文奎堂版)”을 사용하였다. 강희판은 모두 36책으로 책 내에 “易堂藏板”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했으며, 도광판은 모두 50책으로 책 내에 “易堂原板”이라는 글자가 있고, 문규당판은 모두 48책으로 책 내에 “文奎堂藏板”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1차적으로 구분하였다. 강희판의 편차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었다. 도광판의 편차는 1책부터 6책까지 《魏伯子集》(10권), 7책은 《魏興士集》(6권), 8책부터 31책까지는 《魏叔子集》으로, 8책에서 27책까지 《魏叔子文集》(22권), 28책에서 29책까지 《魏叔子詩集》(8권), 30책에서 31책까지 《魏叔子日錄》(3권), 32책에서 43책까지 《魏季子集》(16권), 44책에서 47책까지 《魏昭士集》(10권), 48책에서 50책까지 《魏敬士集》(8권)으로 총50책이다. 문규당판의 편차는 1책부터 6책까지 《魏伯子集》(10권), 7책은 《魏興士集》(6권), 8책부터 26책까지는 《魏叔子文集》(22권), 27책에서 28책까지 《魏叔子日錄》(3권), 29책에서 30책까지 《魏叔子詩集》(8권), 31책에서 41책까지 《魏季子集》(16권), 42책에서 45책까지 《魏昭士集》(10권), 46책에서 48책까지 《魏敬士集》(8권)으로 총48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두 편의 논문에서 언급된 세 가지 판본과 목산 장서인본의 편차 분류에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三卷第三十、三十一册，第册二至四三册为《魏季子集》十六卷，第四四至四七册为《魏昭士集》十卷，第四八至五十册为《魏敬士集》八卷。文奎堂版共四十八册，内有“文奎堂藏板”字样。第一至六册为《魏伯子集》十卷，第七册为《魏兴士集》六卷，第八至二十六册为《魏叔子集》二十二卷，第廿七、廿八册为《魏叔子日录》三卷，第廿九、三十册为《魏叔子诗集》八卷。第册一至四一册为《魏季子集》十六卷，第四二至四五为《魏昭士集》十卷，第四六至四八册为《魏敬士集》八卷。书内铃有“武夷口氏藏书”和“与古轩文库”印。

*‘소삼위(小三魏)’는 ‘삼위(三魏)’ 즉 위제서(魏際瑞)·위희(魏嬉)·위례(魏禮)의 아들인 위세걸(魏世杰), 위세효(魏世倬), 위세엄(魏世儼)을 지칭한다. 소삼위와 소삼위 문집에 관련된 연구는 후속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순번	위백 자집	위홍 사집 (채실 문고)	위숙자집			위계 자집 (위계자 문집)	위소 사집 (위곡 문고)	위경 사집 (경부 문고)	총책 수
									총권 수
① 康熙版									36
② 道光版	1~6 (6책)	7 (1책)	문집	시집	일록	32~43 (12책)	44~47 (4책)	48~50 (3책)	50
			8~27 (20책)	28~29 (2책)	30~31 (2책)				
			총24책						
	10	6	22	8	3	16	10	8	83
③ 文奎堂版	1~6 (6책)	7 (1책)	문집	일록	시집	31~41 (11책)	42~45 (4책)	46~48 (3책)	48
			8~26 (19책)	27~28 (2책)	29~30 (2책)				
			23책						
	10	6	22	8	3	16	10	8	83
④ 木山 所藏本	1~6 (6책)	7 (1책)	⑤ 8~28	26	27	29~38 ⑦(11책)	39~44 (6책)	45~47 (3책)	⑧ 47
			⑥ 총20책						
			10	6	문집22				

- ① 康熙版(易堂藏板)(1664~1679년)
- ② 道光版(易堂原板)(1845년)
- ③ 文奎堂版(文奎堂藏板)(1878년)
- ④ 木山 所藏本(易堂藏板)(1755~1756년 연행 시 구입)
- ⑤ 8~28 (三魏集十九 산실: 卷16 및 叔子第十二에 해당)
- ⑥ 현전본 총20책(원래는 총21책이어야 함)
- ⑦ ⑧ 季子第八과 季子第九를 三魏集三十六으로 중복 표기하여 원래는 三魏集十九가 산실된 것을 합하면 48로 끝나야 하는데 三魏集四十七終으로 끝남

목산 장서인본과 세 가지 판본을 비교해 보면 서로 다음과 같은 연관적 특징이 보인다. 첫째, 목산 장서인본에는 강희판에 표시되어 있는 ‘易堂藏板’의 표식문자가 있다. 둘째, 목산 장서인본의 총권수는 도광판·문규당판의 총권수인 83권으로 서로 일치한다. 셋째, 목산 장서인본의 총 책수는

도광판 보다는 2권이 적으며, 문규당판과는 산실된 제19책을 포함하면 총 48책으로 동일해 보인다. 넷째, 도광판, 문규당판, 목산장서인본이 각각 차이를 드러내는 문집은 《위숙자집》과 《위소사집》의 두 문집이다. 이 중, 《위숙자집》은 모두 《위숙자문집》, 《위숙자시집》, 《위숙자일록》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세 가지 구분은 도광판·문규당판·목산 장서인본 모두 동일하나, 그 편차의 순서와 책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편차의 순서로 보면 목산 장서인본은 ‘문집-시집-일록’의 순서로 도광판과 동일하며, 문규당판은 ‘문집-일록-시집’순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책수에 있어서 목산 장서인본의 《위숙자집》은 21책이고 도광판은 24책, 문규당 판은 23책이다. 목산 장서인본의 《위소사집》의 책수는 6책인데, 도광판과 문규당판은 모두 4책이다.

상기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목산 장서인본은 ‘역당장판’이라는 자양으로 봐서는 강희판으로 볼 수 있으나, 총책수가 달라서 같은 판본으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胡成華가 확인한 상해박물관의 강희판은 총36책으로 목산 장서인본과는 차이가 크다. 그렇지만 총책수가 일치되는 문규당판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도광25년인 1845년에 제작된 도광판과, 광서년간인 1878년에 제작된 문규당판은 목산이 연행 사행을 다녀온 시기보다 한참이나 나중으로 목산이 사행에서 구매하였다는 기록을 근거로 하면 역시 강희3년인 1664년부터 강희18년인 1679년에 걸쳐 완성된 강희판의 한 종류를 구매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劉勁峰의 연구를 보면, 강희3년부터 강희18년까지 지속적으로 《삼위집》 문집 제작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론하였고, 또한 三魏의 문집이 먼저 판각되고 小三魏의 문집은 나중에 제작되어 첨부되어 최종 83권 50책에 이르렀다고 하니, 목산 장서인본은 강희판 역당장판 중에 후반에 제작되어진 역당본으로 50책으로 완성되기 전 판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도광판과 문규당판의 총책수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는 도광판의 원판은 강희판 즉 역당장판으로 원판과 중각판을 구분 짓기 위해 역당장판과 역당원판으로 책내 첫 서체에 구

분해되었고, 문규당판의 저본은 목산 장서인본과 같이 총48책으로 제작된 역당장판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목산 장서인본은 역당장판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으며 목산 장서인본과 같은 판본이 문규당판본의 원판이었기 때문에 목산 장서인본과 문규당판의 총책수는 48권으로 동일하게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겠다.

아래에 목산 장서인본 《삼위집》의 서제(書題)쪽을 정리해보았다.



영도삼위전집



위백자문집
위제서(魏際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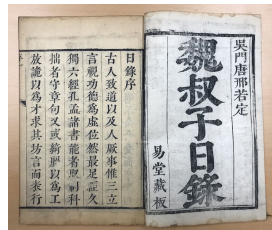
재실문고
위세걸(魏世杰)



위숙자문집
위희(魏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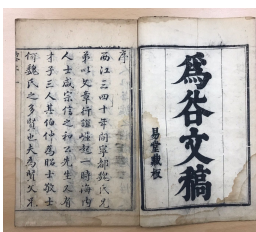
위숙자시집
위희(魏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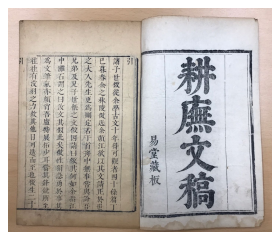
위숙자일록
위희(魏禧)



위계자문집
위례(魏禮)



위곡문고
위세효(魏世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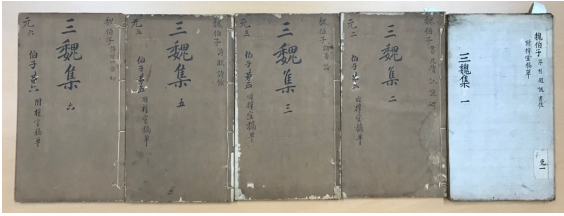
경무문고
위세엄(魏世儼)

본고에서는 목산이 연행에서 구입해 왔다고 기록한 《삼위집》은 ‘一帙合二十八本’인데, 현전하는 목산 장서인본은 총4질 48책으로, 문집 수량의 차이를 밝히고자 판본간의 관계성을 추론해 보았으나, “28本”의 “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계산법으로 28본이라고 했는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28本”을 冊으로 계산하든 卷으로 계산하든 모두 다른 판본과 일치되는 숫자가 나오지 않았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는 판본 간 실물 비교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선행연구의 내용을 통해 판본 비교를 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외에도 도광판·문규당판과 목산 장서인본의 《위숙자집》의 편차가 각각 서로 다르게 구성된 점이나, 총책수에는 차이가 없지만 《위숙자집》 책수가 2책이 줄어든 만큼 《위소사집》의 책수가 2책 늘어나 있는 문규당판과 목산 장서인본의 차이와, 도광판보다 목산 장서인본의 《위숙자집》은 3책이 적은 대신 《위소사집》은 2책 많고 《위경사집》은 1책이 적은 점 등 상당히 많은 의문점이 존재하는데 아직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향후 상세한 판본 연구를 통해 원인과 결과를 다시 상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목산 장서인본 《삼위집》의 실제 사진을 아래에 모았다. 4질 모두 덮개 포장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소장된 상태가 매우 양호함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매권마다 목산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었고, 사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중간 중간에 한지로 재포장한 책들이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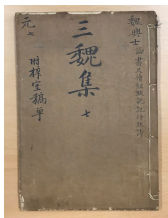
《삼위집》(4帙 총47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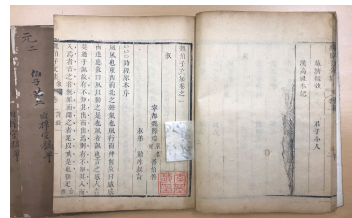
《위백자집》(총6책중 5책)/삼위집一,二,三,五,六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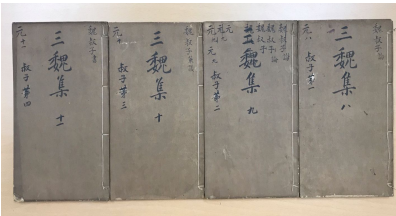
《위백자집》
삼위집四에 해당함



《위흥사집》(총1책)/삼위집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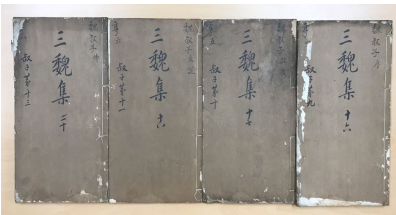
목산 장서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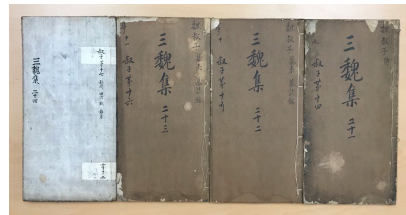
《위숙자집》/삼위집八,九,十,十一



《위숙자집》/삼위집十二,十三,十四,十五



《위숙자집》/삼위집十六,十七,十八,二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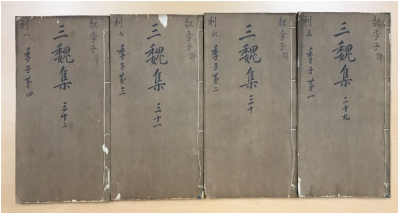
《위숙자집》/삼위집二十一,二十二,二十三,二十四

25) 책표지에 표기되어 있는 數字는 三魏集을 위주로 한 총책수와 인물별 문집의 순서를 각각 함께 표기해 두었다. 그러나 표기에 다소 오류가 있어 본문에서는 오기된 표기에 각주를 달아 설명해 두었다.



《위숙자집》/삼위집二十五,二十六,二十七,二十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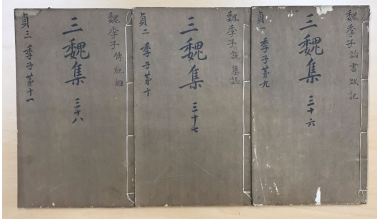
《위숙자집》(총20책)
*《삼위집》제19책 산실
(《위숙자집》제12권에 해당)



《위계자집》/삼위집二十九,三十,三十一,三十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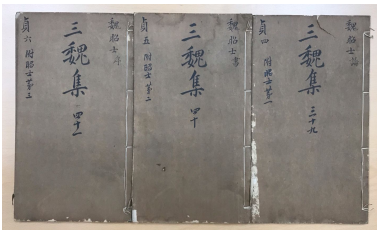


《위계자집》/삼위집三十三,三十四,三十五,三十六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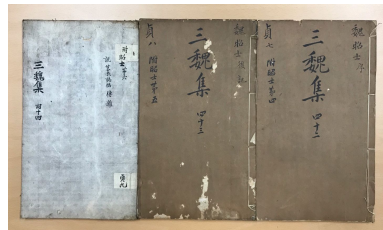


《위계자집》/삼위집三十六,三十七,三十八

《위계자집》(총11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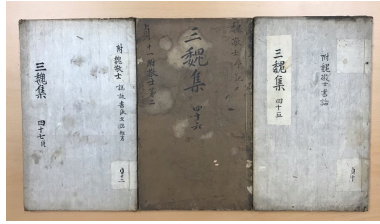


《위소사집》(총6책)/삼위집三十九,四十,四十一



《위소사집》/삼위집四十二,四十三,四十四

26) 《위계자집》의 산실본은 없으나 《위계자집》 제8권과 제9권에 해당하는 《삼위집》의 표제가 36으로 중복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36책 뒤로는 숫자가 하나씩 당겨져 표기되어 있는 셈이다.



《위경사집》(총3책)/삼위집四十五, 四十六,, 四十七²⁷⁾

IV. 결론

본고는 연행에서 실제로 구매하거나 얻어진 중국 도서가 현재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18세기 중엽에 서장관 신분으로 연행을 다녀온 목산 이기경(木山 李基敬)의 연행록 《음빙행정력(飲氷行程曆)》에서 언급된 중국 도서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목산이 자신의 연행에서 수집하고자 했던 중국 도서는 무엇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어떤 중국 도서를 소장하게 되었는지 고찰해보고자 했다. 이는 현전하는 자료의 실증적 고찰을 통해 현전본 중국 도서의 가치를 재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연행록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존하는 중국 도서의 역사적 가치를 증명하고 더불어 연행록에서 언급한 중국 도서 현전본이 지니는 향후 연구 방향을 재탐색할 수 있게 하는 연구가 되었다.

연행사가 연행에서 수집해 온 뒤 현재까지 남겨져 전해지는 중국 도서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당시 사행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남겨진 기념품과 같은 존재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기념품을 보면서 그 시대를 살았던 중국인의 문학과 사상을 이해할 수 있으며, 당시 중국을 여행했던 연행사의 문화적 지향성을 유추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27) 마지막 책이 三魏集四十七終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三魏集十九가 산실된 것을 합하고, 季子第八과 季子第九를 三魏集三十六으로 중복 표기한 것을 감안하면, 三魏集四十八로 끝나야 맞다.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현전 중국 도서에 관한 고찰을 통해, 본고는 그 당시 조선 지식인을 대표했던 목산의 사상적 수요는 실학적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에서도 여전히 주자학적 소명의식을 고취하고자 했고, 여전히 대명여리를 지키고자 했으며, 중화의 명맥을 이어가는 조선의 지식인으로서 명말 유민의 유적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산 장서인본 《삼위집》은 명말 유민들의 유적일 뿐만 아니라 문학적 가치도 매우 높은 문집이었다. 따라서 연행 당시 구득도서 1순위였던 여유량의 문집을 대신할 만한 가치가 있었기에 《삼위집》의 구입은 목산의 연행 사행에 있어서 최고의 성과라고 보여 진다. 더불어 목산 장서인본 《삼위집》의 판본 연원에 대한 연구 추론대로 강희년간에 제작된 易堂藏版의 한 종류가 맞다면 이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 학계에서조차 희귀본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향후 아직 정리되지 못한 기타 목산 장서인 고문헌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계획하여 현전하는 중국 도서에 관한 보다 더 체계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대중, 《魏禧와 조선후기 한문학-서유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58호, 2013.
박세욱, 《객가문인과의 만남-양과 정태화와 위제서》,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40집, 2007.
신익철, 《연행록을 통해본 18세기 전반 한중 서적교류의 양상》, 《태동고전연구》 제25집, 2009.
안대희·김종민 외 역, 《위숙자의 《일록논문》 역주》, 《한문학보》 제31집, 2014.

- 옥영정, 〈조선 使臣의 중국서적 수집활동과 그 현존자료에 대한 시론적 고찰〉, 《서지학연구》 제61집, 2015.
- 이경훈, 〈《飲氷行程曆》에서 언급된 중국 도서 고찰-木山 李基敬의 견해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제81집, 2019.
- 이경훈, 〈呂留良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시선 一面考〉, 《건지인문학》, 제27집, 2020.
- 이기경 저, 이영춘 외 역주, 《1756년의 북경이야기-이기경의 「飲氷行程曆」 역주》, 경기도, 교육과학사, 2016.
- 이기경, 《木山藁》, 宗孫 李柱成氏家 保藏本
- 이기경, 《木山藁》영인본, 전주, 세원사, 1990.
- 전주시·전주역사박물관, 《전주학연구》 제6집, 2012.
- 정우봉, 〈조선후기 지식인의 陳繼儒 수용과 그 의미〉, 《韓國漢文學研究》, 제57집, 2014.
- 劉勁峰, 〈寧都發現《寧都三魏全集》易堂刻版〉, 《江西歷史文物》, 1980, 3期.
- 胡成華, 《寧都“小三魏”的文集整理及其年譜彙編》, 江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 Abstract >

This study reviews are to find out for how Chinese books present status, actually purchased or obtained on the way to Peking trip, looking at the records of the Chinese books mentioned in the records of traveling in Peking(燕行錄, Yeonhaengrok) written by Moksan Lee Gi-gyeong (木山 李基敬). Moksan who went to Peking in the position

of Secretary in the mid-18th century.

On the base of this, I wanted to consider about what Chinese books Moksan (木山) wanted to collect in the schedule of going to Peking and which Chinese books Moksan (木山) had as a result.

The collection of 《Sanweiji(三魏集)》 was stamped with the seal of Moksan, is not only the remains of the survivors (abandoned people) of the late Ming Dynasty, but also has a high literary value. Beijing trip at that time It was worth replacing most desired Lü Liuliang(呂留良)’s collection of books, It can be said that The purchase “Sanwei Quanshu” is the biggest achievement from Moksan (木山)’s mission of beijing trip.

In addition, if one type of “Yi-tang edtion(易堂藏版)” produced between Kangxi(康熙) is correct, according to the research inference about The collection of 《Sanweiji(三魏集)》 stamped with the seal of Moksan(木山), it will be the subject of research that is recognized as a rare book not only in Korea acdemia but also in Chinese academia.

This not only reaffirmed the value of The actual Chinese old books through the empirical study of the materials handed down so far, but also proved the historical value of existing Chinese books based on the content mentioned in Yeonhaengrok(燕行錄), as well as it has become a study that can re-search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of The actual Chinese old books mentioned in Yeonhaengrok(燕行錄).

Key Words : 《飲水行程曆》(Ŭmbinghaengjŏngnyŏk), 木山 李基敬(Moksan Lee Gi-gyeong), 《三魏集》(Sanweiji), 易堂藏版(Yitang edition)

